

MB농정 전남 큰일났다

경쟁력 위주 농업선진화 정책 영세 농어민 타격

각종 농어업 보조금 폐지와 면세유 축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움직임 등 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일련의 농어업 정책들이 가족 농어업 중심의 영세 농어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구나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력'과 '시장논리'를 내세운 정부의 농업선진화 방안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만든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수 차례 회의를 갖고 농어업 보조금과 어업용 면세유 폐지·축소 등의 원칙을 세웠다.

농업 보조금은 기업농과 주업농을 육성하는 데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산업의 경우도 어선 건조와 어구 제작 지원 등의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고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의 수산 보조금 개편의 원칙을 정했다.

여기에 최근 농사용 전기료 원가가 일반용·가정용·산업용 등에 비해 너무 싸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농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 농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농업발달 논의' 라며 농업선진화 방안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21일 오전 한 나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업선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선진화 방안은 농민을 퇴출시키는 농업 구조 조정안"이라며 "일방적인 농어업선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논의에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국 농가의 13.8%, 어업인구의 37%를 점유할 정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농업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대비 1㏊ 미만 농가가 63%에 달할 정도로 가족농 또는 영세 농어민 가족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어민들은 "농업이 국가 기반산업인데다 가족 농업 중심인 한국 농업을 '시장 경쟁력'과 '규모화' 논리만을 강조해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소규모 영세 농가의 몰락과 퇴출이 우려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농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 농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농업발달 논의' 라며 농업선진화 방안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21일 오전 한 나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업선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선진화 방안은 농민을 퇴출시키는 농업 구조 조정안"이라며 "일방적인 농어업선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논의에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국 농가의 13.8%, 어업인구의 37%를 점유할 정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농업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대비 1㏊ 미만 농가가 63%에 달할 정도로 가족농 또는 영세 농어민 가족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단비 속 모심는 초등생들

"이슬비는 부실부실 짙은 비는 담상담상 여그도 놓고 저그도 놓아..." 광주·전남지역에 45~147.5 mm의 비가 내린 21일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 주최로 열린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에서 영암 대불초등학교 학생들이 진도 남도들노

/위직당기자 jrwi@kwangju.co.kr

대법 '존엄사' 첫 인정

호흡기 제거 허용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 가족이 세브



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측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 심혈

2015 U대회 개최지 결정 D-1

브뤼셀=윤영기기자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개최 도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막판 경합중인 광주시, 캐나다 에드먼턴, 대만 타이베이의 승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최 도시는 23일 오전 10시~밤 8시(한국시간 오후 5시~24일 새벽 3시)까지 벨기에 브뤼셀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집행위원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의 블록과 올프 호텔에는 광주를 비롯, 대만 타이페이, 캐나다 에드먼턴 등 3개 후보도시 대표단이 도착,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체육계에서는 집행위원의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포진한 '유럽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행 위원들은 유럽권(13명), 아시아권(7명), 아프리카권(4명), 미주 지역(3명)으로 분포돼 있다.

또 FISU총회 직전까지 펼쳐질 막판 유치활동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를 공략하는 도시가 개최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광주시 유치단은 22일 FISU총회

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 블록과 올프 호텔에 홍보부스를 설치, 막판 표심집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의 블록과 올프 호텔에는 광주를 비롯, 대만 타이페이, 캐나다 에드먼턴 등 3개 후보도시 대표단이 도착,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돌체 라 올프 호텔 2층 행사장에 설치되는 홍보부스(3m×3m)는 FISU

리한 교통접근성 등 광주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막판 FISU집행위원회들의 표심을 좌우하게 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상대국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극도의 보안 속에 모든 작업을 진행해 왔다.

/penfoot@kwangju.co.kr

한나라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선출

에 95표를 획득, 집권 여당의 제2기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결선까지 오른 흥우여 의원은 62표를 얻는데 그쳤다. 기권은 2표였다.

안 의원은 159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7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재적과반을 얻지 못해 47표를 얻은 흥우여 후보와 결선을 치렀다. 정의화 후보는 39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박지경기자 jkpark@

